

할머니 등 연쇄 폭행살해

같은 마을 10대 구속영장

89.

8.15

【연기=손규성 기자】충남 조치원경찰서는 14일 60대 할머니 2명과 10대 소녀 1명 등 3명을 폭행하고 목졸라 죽인 뒤 암매장한 오아무개(18·중2 중퇴·연기군 남면 진의리)군을 붙잡아 살인·강간·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
경찰에 따르면 오군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연기군 남면 진의리 마을 뒷산에서 유아무개(7·남면 송담리)양을 강제로 폭행한 뒤 목졸라 실신시켜 흉기로 목을 찢러 살해하고 사체를 예비군참호에 유기했다는 것이다.

오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13일 남면 양화리 논에서 벼이삭을 줍던 노아무개(69·양화리)할머니를 목졸라 실신시켜 흉기로 목 등 15곳을 찢은 뒤 강제로 폭행하고 암매장하는 한편 지난 5월24일에도 같은 장소 하천부지에서 밭일을 하던 심아무개(62·남면 양화리)할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뒤 갈대로 가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.